

2023 XBRL 국제 컨퍼런스

환영사

2023.06.01.(목) 14:05~14:10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XBRL본부가
공동으로 2023 XBRL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회사를 해주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과
축사를 해주실 이기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님,
주제발표를 해주실 금융감독원 이석 국장님,
홍익대학교 윤재원 교수님,
XBRL International CEO Mr. 존 터너,
XBRL International Vice-Chair Mr. 요시아키 와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 주제는

“재무공시 선진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단계적
XBRL 재무공시 확대 방안”, “한국의 XBRL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 “해외 XBRL 도입 성공 사례”
세가지 입니다.

XBRL은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즉, '확장가능한 비즈니스 보고 언어'로 비즈니스 보고의 글로벌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접근가능성은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XBRL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XBRL은 재무보고에 초점을 맞추어 출발하였지만 최근에는 ESG와 같은 비재무보고 등에도 적용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본문에 대해서만 XBRL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왔는데, 최근 재무제표 주석에 대해서도 XBRL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정책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상장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무제표 주석에 XBRL을 적용하는 계획은 기업들이 준비기간을 두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책에 발맞추어 해당 기업들은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XBRL 도입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그 경험과 지식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IFRS XBRL 택사노미의 한글 번역 및 배포와, DART XBRL 택사노미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등 2007년부터 한국의 XBRL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XBRL International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금년부터 XBRL의 안정적인 도입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XBRL의 안착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컨퍼런스가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한국의 재무공시 선진화 목표를 달성해가는 큰 발판이 되기를 희망하며 환영사를 마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컨퍼런스 개최를 지원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